

# “무농약 청정재배 알려지면서 소비 증가”

1996년 고성산불로 소실된 송이 대체작목으로 시작 ... 참나무 원목에서 톱밥배지 방식으로 전환 추세

## ‘강소농’이 살길이다 ③ 탐동표고버섯연구회

탐동표고버섯 연구회(회장 문창봉)는 1998년에 발족돼 현재 재배농가 10여개소에 2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재배 농가 대부분은 간성을 탐동리에 위치해 있고, 간성을 진부리와 토성면 성천리에 각각 1개 농가가 표고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탐동표고버섯 연구회는 비가림 시설하우스에 49,587㎡ 재배면적을 갖춰, 대부분이 참나무 원목을 이용한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2개 농가에서 톱밥 배지 재배 방식도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참나무 원목을 이용한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참나무 원목의 가격 상승과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톱밥배지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탐동표고버섯연구회는 현재 참

나무 원목 20만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생산량 150톤과 연매출 6억원을 올리고 있다.

탐동리 표고버섯재배단지 는 지난 1996년 고성산불로 인해 송이산이 전부 소실돼 탐동리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송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후 안정적인 생산으로 탐동리 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았던 표고버섯 재배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시설하우스 및 참나무 원목이 모두 유실되고, 매몰돼 큰 위기에 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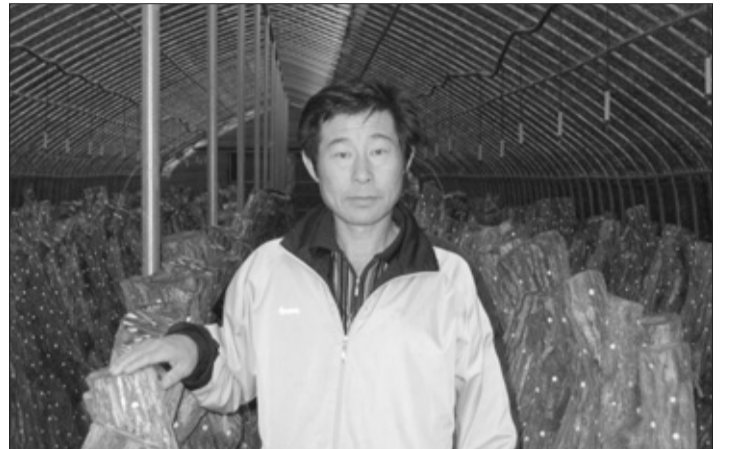
태풍 피해를 입은 후 행정의 지원으로 다시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게 됐으나, 당시 농가별로 받은 수해 복구용 융자금을 지급까지 상환하느라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문창봉 회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앞이 캄캄했다”며 “이후 모든 농가들이 재기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부채상환 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고 했다.

문회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농가들이 몇 년만 고생하면 잘사는 농촌으로 복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표고버섯재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탐동표고버섯은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공사와 우편판매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달 19일 탐동1리와 강동세무서가 자매결연식을 맺어 직거래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판로개척에 활기를 띠고 있다.

탐동표고버섯 단지는 겨울에 참나무 원목을 확보해 다음해 봄에 종균접종을 한 후 6월부터



탐동표고버섯 연구회 문창봉 회장 자신의 버섯 농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10월까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표고버섯은 온도와 기후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햇빛 30%, 그늘 70%의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가 적합하다고 한다.

표고버섯은 혈관계선에 도움을 줘 암에 대한 저항력과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문창봉 회장은 “청정자연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탐동표고버섯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며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농가들이 어렵지만 서로를 도우며 탐동의 무공해 청정 표고버섯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사업은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입니다.

1. 지급대상농가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
2.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3. 지급조건 : 연령은 70세이하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4. 가 격 : 감정평가범위 내 합의된 금액
5. 임 대 료 :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630-0113, 0120, 0122)